변화산 예수 계시록 예수

(다니엘 10:1~21)

1. 바사 왕 고레스 제삼 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변화산 예수 계시록 예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변화산 예수 계시록 예수'

이미 고인이 되신 저의 아버지께서는 함경도가 고향이시고 만주에서 자라셨습니다. 6.25 때에 피난을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할머니와 고모만 나오셨기 때문에 친가 쪽으로는 친척이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할머니가 피난통에 보따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사진 한 장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오직 할머니와 아버지의 구전을 통해서만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아들에게는 무척 엄하신데 손자에게는 무척 다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어찌나 엄하셨는지 앉을 때에는 항상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화를 내실 때에는 놋으로 된 재떨이까지 던지면서 역정

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시는 동안에도 품에는 손자를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불같이 호령하시다가도 품에 안은 손자를 보시고는 표정이 급변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달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조할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다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13~14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라고 시작하여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인자(人子) 즉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이 모습이 여러 부분에서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인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반면 이렇게 묘사 된 예수님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인자로 불리셨듯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로 칭하십니다. 인자란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과 변화산 사건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빛 자체이신 것처럼 단순하게 묘사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그 모습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 색깔이 희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서 눈이 부신 상태를 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을 접한 자들의 반응에서 차이가 납니다.

환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다니엘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본문 8~9절에서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섭고 두려워서 혼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빛의 발광체처럼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작 자신이 거할 초막을 지을 생각은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몰아의 경지에 이르고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좋은 꿈을 꿀 때에 어렴풋이 꿈인 것을 알면서도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니엘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변화산 사건을 동료들과 함께 경험했고 이후에 계시록의 환상도 보았던 사도 요한은 특이한 경험을 한 셈입니다. 변화산 사건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두려움에 죽을 지경이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앞서 등장한 70이레의 환상을 본 후로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고 스룹바벨의 지도아래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미 성전재건도 시작되었으나 이방인들의 방해로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두고 슬퍼하며 3주 동안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90세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죽을 날은 가까워 오는데 민족과 조국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차 포로귀환 때에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왔던 포로들은 7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5만 명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 귀환하게 되는데 극히 일부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귀환을 포기했던 다니엘은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70년 동안 이방나라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 동안 선민들은 이방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졌습니다. 황무지와 마찬가지인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대과업에 참여할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점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해방이 이루어졌는데도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니 먼저 자리 잡고 살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재건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은 내부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이 식었고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의 방해에 시달리는 민족을 보며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가득차서 3주나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이 BC.536년경인데 이 때로부터 약 300년간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유대 종교를 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환상에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또 다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암울하게 전개 될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산 사건 때와 같이 황홀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기진하고 혼절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전개되어질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다르게 묘사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300년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쏠려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여호와 신앙은 쇠락했으며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시작부터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나라와 민족이 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선민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선민은 좁게는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 크게는 국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위탁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선민은 예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현장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앞서 저의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분께서 아들을 야단치실 때에도 손주는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이 때에 손주가 해야 하는 일은 할아버지 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아버지 품안에 안겨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역사와 일들은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을 보내야 될 대상은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그 일을 주관하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예언의 환상을 보여주시기에 앞서 예수님의 권위에 찬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두어야 할 대상은 300년 간 이루어질 선민들의 역사가 아닌 그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갈멜의 부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전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나발을 존

중하였으나 나발은 다윗을 홀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때에 복수를 다짐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라고 설득합니다. 자기 남편인 나발과 같은 원수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는 한 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었듯이 선민들 또한 그렇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대신 나라와 민족으로 슬퍼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명 싸개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러한 고민을 멈추고 그 마음을 예수님 안에 들여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장 33절에서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섭고 두려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민은 인자 즉 하나님의 주권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명 싸개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민들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당사자로써의 예수님의 모습을 앞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결코 예수님 밖에서는 이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90살이 다 되어가는 노인 다니엘은 뼛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염려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약해져가는 모습과 성전재건이 이방인들에게 훼방 받는 모습을 보며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선민으로써 해야 하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선민의 생명 싸개가 되어 주시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이토록 다르게 묘사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보았으며 계시록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혼절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한편 다니엘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변화산 사건 때의 제자들의 반응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몰아의 지경에 이릅니다. 자신들이 머물 장막은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짓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이렇게 차이 나는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니엘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환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도망했던 이유는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의 배후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대하실 때에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혼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에 앞서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까지 가시는 과정을 포함한 예고였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연쇄적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하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까지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들이 따라갈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하늘까지 이르신 예수님의 동선이 곧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산 사건 때처럼 황홀하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대한 등짐과 죽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언급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 사함이라는 것을 교리로 배워서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 여기고 있을 뿐이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죄 사함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과 승천에까지 참여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는 경고대로 마음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서 연합해야 땅에서 지은 죄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채워져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채움이 인간의

마음이 가진 필연적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기쁨을 추구함으로써만 인간의 마음은 존재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추구함이 끊어지면 인간은 존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 방식을 가진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에서 영적인 두려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왜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현상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귀신이 빙의하여 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연쇄살인범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현상이 없음에도 생기는 영적인 두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죽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는 한 십자가 생활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십자가를 무서워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 말로 십자가를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섞여 있는 선민의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만 이토록 예수님의 모습이 무섭도록 나타난 이유는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마음에 품은 자들을 마주대하시는 광경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암울한 미래가 다니엘의 마음에 생명 싸개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설령 힘들고 괴로워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쳐지고 악한 자들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인간의 이웃이 되셔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주관하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생명 싸개는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 신앙이 투철한 사장님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은 부당해고 당한 것을 마음의 생명 싸개로 여기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선민은 예수님을 생명 싸개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평안은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생명 싸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그냥 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단순히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당해고라는 사건의 배후에 예수님이 마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지도 않고 도망한 다니엘의 주변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혼절할 만큼 근엄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이들을 처단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이 무르익도록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중에서도 늦게나마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십자가를 따를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돌이킬 자라면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이기에 우리 또한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미워함을 마음의 생명 싸개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마주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민이라면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현장 자체를 마음의 생명 싸개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선민은 마냥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의 생명 싸개로 삼을 때에 예수님이 주권자로써 당신의 뜻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원수가 생길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주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곧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십자가 생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지고 다닌다는 바울의 고백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생활화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조건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세상을 담은 상태에서 생기는 영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세상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세상 것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만큼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혼절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마주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변화산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마주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